

홍명보 “서정원 빨리와”

지도자 과정 이수때까지 '임시코치진' 운영

홍명보(40)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이 당분간 '임시코치진'과 함께 대표팀을 이끈다.

U-20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나서 2일 이후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첫 훈련을 시작하는 홍명보 감독의 곁에는 김태영 코치와 김인수 대한축구협회 전임코치, 신의손 대교 캠퍼스 코치로 코치가 코칭스태프로 참여한다.

이중 U-20 대표팀을 전담하는 지도자는 홍명보 감독과 김태영 코치일 뿐 김인수 코치와 신의손 코치는 말 그대로 '파트타임' 지도자로 대표팀에 합류했다.

해 임시로 코치진을 꾸리게 됐다.

신의손 코치는 홍 감독이 대표팀 감독 선임 이후 골키퍼 코치로 낙점했지만 현재 소속팀이 따로 있고 대표팀 소집훈련 일정도 길지 않아 골키퍼 전임 지도자의 필요성이 적다는 협회 내부의 지적에 따라 '임시직' 코치'로 활동하게 됐다.

또 현역 시절 김봉현이라는 이름으로 1995~2002년까지 전봉의 수비수로 활약했던 김인수 코치는 서정원 코치가 오는 6월 시작하는 1급 지도자 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축구협회 전임지도자의 자격으로 홍 감독을 돕기로 했다.

하지만 서정원 코치가 홍명보호와 인연을 아예 끊는 것은 아니다. 코치 역할은 할 수 없더라도 대표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교통경찰·자원봉사자 너무 친절”

3·1절 마라톤대회 참가자들 홈페이지에 호평 “먹거리도 풍족... 벌써부터 내년대회 기다려져”

지난 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던 제44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가 ‘완벽한 준비·깔끔한 운영·친절한 대회’라는 호평속에 명실상부한 호남의 대표적 마라톤대회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이번 대회를 위해 전국각지에서 광주를 찾았던 출전자들은 대회 홈페이지에 참가 소감을 올리며 식지 않은 ‘마라톤의 감동’을 전하고 있다.

김용영씨는 “대회 운영자와 봉사자들이 한결같이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줘 매우 만족스러웠다”면서 “보통하는 마음으로 내년 대회를 기다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현성씨도 “음수대에서 봉사한 아주머니들이 웃으며 격려해 준 덕에 끝까지 완주하는데 힘이 되었다”며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폴코스에 출전했던 ‘전남달리미’는 “운영자들의 세심한 배려와 대회 참가자들의 매너가 정말 좋았으며 날씨도 좋지 않아 달리기 가장 적합했다”고 밝히면서 “주변 경관도 좋아 지루하지 않게 달릴 수 있는 최적의 코스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뒤늦게 끝내 먹거리 제공 코너에 갔는데 마지막 주자 음식까지 준비해 놓은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며 정이 넘치는 대회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작년에 이어 출사표를 던졌던 ‘구미달리미’는 “마라톤러들을 배려한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난다”며 “일일이 열거하기는 힘들지만 교통통제나 먹거리·기념품 등이 훌륭해 마라톤러들에겐 계속 참가하

고픈 대회였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 “교통통제 하는 경찰들도 참가자들이나 지나가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말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고 대회를 평가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폴코스 100회 완주를 달성한 이준재씨도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준재씨는 “코스도 날씨도 좋았고 주로(走路)의 봉사활동도 아주 좋았으며 무엇보다 100회 완주를 기념하여 여러가지 이벤트를 마련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다”고 밝혔다.

대회 관계자들은 해도하는 격려의 글에 “출전자분들의 칭찬에 감사드리며 대회 준비로 쌓였던 피로가 말끔히 해소됐다”며 “내년에도 참가자들이 더욱 편하고 즐겁게 달릴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를 하겠다”고 다음 대회를 기약했다.

광주일보에는 교통경찰과 자원봉사자 등 성공적 대회를 치르도록 힘써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ju.co.kr

전남테니스협회장 남기호씨

남기호(52·사진) 전남도의회이 국민생활체육 전남테니스연합회 회장에 취임했다.



남 회장은 지난달 27일 광양시에서 취임식을 갖고 연합회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새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남회장은 “테니스는 스트레스 해소와 체력강화에 좋은 운동이다”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테니스가 생활체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ju.co.kr

광주 북구청 김용철 ‘검도왕’

광주북구청 김용철이 검도왕에 등극했다. 김용철은 최근 용인대체육관에서 막을 내린 SBS배 전국 검도왕대회 결승에서 팀 동료 최철규를 손목치기로 제압, 1-0 판정승리로 우승했다.

준결승에서 천안시청 서성광을 3-0으로 누르고 결승에 올라온 최철규는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ju.co.kr

나주시청 나야름 사이클 3위

나주시청 나야름 선수가 제56회 3·1절 강진군 일주 전국도로사이클대회에서 개인종합 3위를 기록했다.

나야름은 지난 1일 강진에서 막을 내린 대회 여자일반부에서 유진아(서울시청)·손희정(상주시청)에 이어 동메달을 차지했다.

남자일반부 경기에선 서울시청 서석규가 개인종합 정상에 올랐으며 김동훈(국민체육진흥공단), 박선호(서울시청)가 각각 2·3위로 뒤를 이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kwangjuju.co.kr

추성훈 4일 美 격투기 출사표

격투기 스타 추성훈(34·일본명 아키야마 요시히로)이 4일 서울에서 미국 격투기 진출에 대한 출사표를 던진다.

UFC 국내 권리권자인 IB스포츠는 “추성훈이 4일 낮 12시30분 서울힐튼호텔에서 UFC 진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추성훈은 이번 회견에서 UFC로 진출할 배경, 앞으로 각오 등을 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3일(화)
 ▲V리그 <대한항공 : 신협상무>(18 : 40 : KBSN 스포츠)
 ▲2009 월드컵이스볼블랙스 시범경기 <한국 : 요미우리 자이언츠>(18 : 50 : X-sports)
 ▲프로농구 <LG : 전자랜드>(19 : 00 : MBCESP·SBS스포츠)

“시민 염원 프로축구단 내년까지 반드시 창단”

광주 상무 신이섭 단장

“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한 시민들의 열기를 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지난달 광주시체육회 이사회에서 광주 상무 단장으로 선임된 신이섭(64) 단장이 2일 구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신 단장은 “광주 프로축구단 창단은 많은 축구팬들과 광주시민들의 염원이기 때문에 2010년 까지 반드시 창단을 이루어 내겠다”며 “시민들의 축구 사랑과 열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창단 작업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창단 열기를 바탕으로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생각이다.

신 단장은 “시민 호응과 참여 의식이 바탕이 될 때 기업체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고, 시민구단에도 시민들이 중심이 된다”며 축구단 창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당부했다.

축구부 조성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경기장을 찾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프로에서는 성적이 중요한 만큼 일단 탈골찌를 최우선 목표로 세웠다. 좋은 경기로 많은 시민들이 경기장을 찾



고, 그 열기로 선수들이 힘을 얻어 더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기업 스폰서 유치 등을 통해 시민들이 부담없이 경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모색하겠다.”

정지인 출신이라는 점을 장점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광주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신 단장은 “비 전문가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정지인이나 CEO 출신이 스포츠단 수장으로 활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지인으로 쌓은 기반을 바탕으로 선수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장제현 전 사무국장의 사임으로 공식이 된 사무국장 자리에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인물을 선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광주 상무는 8일 오후 3시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 시티즌과의 홈 개막전을 시작으로 2009시즌 대장정에 돌입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ju.co.kr



AS 모나코 박주영이 2일(한국시간) 프랑스 모나코루이2세경기장에서 열린 생테티엔과 2008~2009 정규리그 26라운드 홈경기에서 볼을 컨트롤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영 2도움 맹활약 팀은 2대2 무승부

박주영(24·AS모나코)이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1부)에서 오랜만에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공격포인트를 2개나 추가했다.

박주영은 2일(한국시간) 프랑스 모나코 루이2세 경기장에서 열린 생테티엔과 2008~2009 정규리그 26라운드 홈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90분 풀타임을 뛰며 팀의 2득점에 모두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

AS 모나코는 박주영 활약을 힘입어 값진 2-2 무승부를 거뒀다. /연합뉴스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 서비스국(062)220-0551

미래한의원 진도읍사무소 건너편 노인성질환·소아아토피·비염·비만 한방성형전문의원 원장 조속경 ☎(061)542-1075	맛있는집구이마당 서구 화정4동 염주동세무서 맞은편 농협 뒤 왕골재,갈매기길,오돌배,막창,참국장 대표 기세연 ☎(062)384-9290	손편방손만두잡하는집 북구 두림동 농협3거리 새마을금고 맞은편 손편방,손만두전문점,떡만두,만두,샌드위치,커피 대표 이금숙 ☎(062)251-3379	스위스약국 동구 계림동 E마트약국 성실하고 친절한 약국 약사 김현아 ☎(062)512-0088	선화공인중개사 남구 진월동 구해대마트 건너편 토지,상가,아파트,매매,임대전문 대표 김길천 ☎(062)654-2487		
동양컨테이너 남구 송하동 송암공단 입구 컨테이너 신제작 및 임대전문 ☎(011)603-1500	비단꽃 남구 백운동 제일병원 맞은편 가족커뮤니티,퓨전한복,드레스,돌복대어,정장 대여전문 ☎(070)7550-8217	선운산풍천장어 광산구 월곡동 흑사거리 주공단지후문앞 양념구이,소금구이,장어탕,알탕,연회실 및 대형주치정원비 단채예약가능 ☎(062)956-8687-8	장르정 광산구 송정동 송정주민센터 위 한식부페 전문 대표 박현희 ☎(062)943-0880	공간연출 북구 두림동 구면서시협정입구 농협옆 온돌마루,수리전문(구조변경APT),테코팅,카펫,토털인테리어전문 ☎(062)266-4460	남도골프 남구 방림동 광주천변우변도로 각종골프용품,도소매골프클럽전문 교정 대표 윤석노 ☎(062)673-8118	이노티안경 남구 진월동 빅시티 2층 안경전문 대표 여근수 ☎(062)672-3400
보성녹차마을 남구 송하동 광주대입구 우측 녹차 삼겹살 전문 대표 황미정 ☎(062)674-3726	낙지한마당 서구 병촌동 호반리세실 모델하우스 뒷편 낙지전문점 대표 이영현 ☎(062)375-3700	남도한우 남구 주월동 빅스포 옆 한우재미장 판매가격으로 내부식에서 직접 구입 드실수있습니다. 각종단체모임,회갑,돌잔치 ☎(062)654-8771	떡볶이상심선RED&SPICY 동구 충장로3가 41-1 즉석떡볶이,아이스떡볶이,떡볶이,수제돈가스,스파게티,생과일세이키 ☎(062)224-1073	청호철학원 동구 계림동거리삼복차량과 대인주정사이 작명,이사,시주,궁합,취업,풍수지리 대표 류중철 ☎(062)224-7649	야생약초 남구 주월동 빅스포옆 선비생약방,가우생이 전국전주판매 및 인터넷 대표 하태선 ☎(010)7730-4624	금성한우촌 서구 농성동 서구청 건너편 생고기,삼겹살,곰탕,생비,백반전문 대표 김해자 ☎(062)352-9990
진영수산 동구 학동 남광주시장내 히터문 배달전문점 오전10~오후12시까지 우럭,곰어,새고시,농어,참돔 ☎(062)232-2030	투치칸델라 광산구 월곡동 윤남주공 9단지입구 수공예전문공방,양초공예,천연비누,피죤공예,에쁜글씨,폼아트,초크아트 수강생 모집 ☎(062)959-3252	승일공인중개사 남구 송하동 효천역 앞 택지개발지역혁신도시 토지,임대전문 대표 이승정 ☎(062)682-7181	동남익스프레스 북구 두림동 두암초등학교 후문 앞 일반이사,포장이사,사다리차,피아노운반 포장이사전국연결 각종차량 다량보유 ☎(062)262-8000	자연석치압발판 북구 중흥동 중흥우체국 옆 매장,거실,사무실,주방,현관,계상실,살롱실만 특별회원 대표 김인호 ☎(062)526-6044	우영글로벌산업개발(주) 남구 구동 동강오피스텔2층202호 토지 및 부동산에 꿈이 있으면 생생한 경력,학력제한없음 초보자환영 영업활동비지원 ☎(062)672-5300	초가집참숯불구이 남구 진월동 구해대마트 건너편 숯불구이 전문점 대표 조기주 ☎(062)671-2353